

전북에 특교세 30억 지원

이상민 행안부장관, 잼버리 상황실서 현장대책회의 소집 “잼버리 기간 내내 폭염 예상… 청소년 건강위협 없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폭염 대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전북도에는 30억원의 재난 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잼버리 종합상황실에서 긴급 현장 대책회의를 소집해 “잼버리 기간 내내 극심한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 청소년들의 소중한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폭염대책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스카우트 활동은 원래 다소 불편한 것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버려야 한다”며 “폭염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염 속에서 활동하는 참가자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며 “남은 잼버리 기간 동안

안 관계기관 모두가 대회의 성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잼버리 공동 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경찰, 소방, 아영 책임자, 현장 의료인력이 참여했다. 잼버리조직위원회와 전북도, 전북소방본부, 전북경찰청이 차례로 현장 상황과 대응 경과를 보고하고 기관별 즉시 추진 사항을 수립했다. 이 장관은 참가자들에게 시원한 생수와 이온음료를 충분히 공급하고 폭염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매 프로그램 시작 전마다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 행사 기간 그늘쉼터와 덩굴터널 등 폭염저감시설 작동 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에어컨과 서큘레이터를 추가 배치하도록 했다. 행사장 내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폭염 예방물품 지원을 위해 전

북도에는 30억원의 특교세를 교부한다. 또 운영실현자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분석해 빠르고 적절한 치료를 하도록 했다. 의료진과 협업해 현 상황을 진단하고 운영실현자 수와 건강 상태를 기반으로 대회 프로그램을 조정하도록 했다. 부상자 회복을 위해 구급차 배치를 늘리고 이동병원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해 각종 대응 절차를 재차 점검하고 대규모 운영실현자 발생 시 혼선 없이 임시대피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 줄 것을 지시했다. 안내 요원과 경찰·소방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소방차 등 긴급차량 출입차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 장관은 이날 모친상 발인 직후 잼버리 현장을 찾았고, 이보다 앞서 이 장관의 지시에 따라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전 현장으로 급파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뉴스시스



전북도-이시카와현, 지방정부 교류분야 발굴 논의 3일 전북도 교류지역인 일본 이시카와현 하세 히로시 지사(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를 비롯한 대표단이 전북을 공식 방문한 가운데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지방정부간 교류분야 발굴 등 간담회를 갖고 있다.

도의회, 이시카와현·의회와 우호협력 강화 다짐

코로나19로 중단된 양 의회간 교류 재개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와 일본 이시카와현·의회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양 의회간 교류를 재개하고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3일 의빈접견실에서 하세 히로시 지사와 아베다 히로야키 의장 등 일본 이시카와현·의회 대표단 20명을 접견

하고 양 지역 발전 및 의회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주영은 의장은 “양 지역은 지난 20여년 동안 행정, 문화, 청소년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을 보내왔다”며 “이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다양한 교류 의제를 발굴하고 실무협의로 구체화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동반자로서 변함없는 우정을 이어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본 대표단장인 하세 히로시 지사는 “짧은 일정이지만 양 지역의 발전적인 미래를 구상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추후 도의회 대표단이 이시카와현에 방문해 우호 협력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1년 우호 협력에 합의한 전북도와 일본 이시카와현은 20여년간 문화, 예술,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양 의회는 2013년 우호 협력의 역사를 써간 이후 올해 10주년을 맞이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3일 의빈접견실에서 하세 히로시 지사와 아베다 히로야키 의장 등 일본 이시카와현·의회 대표단 20명을 접견하고 양 지역 발전 및 의회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민선 4~6기 군산시장 역임’ 문동신 전 시장 별세

군산 은파장례문화원 1층 VIP에 빈소 마련

민선 4~6기 군산시장을 역임한 문동신 전 군산시장(사진)이 3일 별세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문동신 전 시장이 지병으로 별세함에 따라 은파장례문화원 1층 VIP(군산시 미성로 512)실에 빈소가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6일 오전 9시이며 장례절차를 거쳐 군산송화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문 전 시장은 1938년 군산에서 태어났으며 군산문창초등학교, 군산남중학교, 군산고등학교,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지난 1969년 농어촌진흥공사에 입사해 1997년 농어촌진흥공사 사장, 2000년 농업기반공사 사장을 거쳐 2006년부터 민선4~6기 군산시장을 역임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민주 혁신위, 5일 전주서 전북지역 당원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은경)가 전북지역 당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혁신위원회는 5일 저녁 7시 전주 시민성동에 위치한 카페 삼플레이스에서 전북지역 당원들이 참여하는 혁신 간담회를 갖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혁신위는 민주당의 나아갈 길과 혁신적인 정치 변화를 위한 방안들을 당원과 일반 시민들에게 청취할 예정이다. /뉴스시스

청소년을 위한 여름방학 선물

CINEMA FANTASY

2023. 8. 19(토) 3:00pm

문화공간 이룸 ART SPACE

주최 : 주관 | 전주지역문화재단
후원 | 전주지역문화재단, 전주매일, 문화재단, 전주지역문화재단, 전주지역문화재단
티켓 | 전석 1만원 |
예매 | (내)이매진 "청소년을 위한 판다지 사내" 장제 03-52-0000
문의 | 063223-5323
카카오 채널 "문화공간이룸"

본 청소년을 위한 Cinema Fantasy는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2023년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입니다.

산림 피해방지·보호·육성 담당 청원산림보호직원 보수체계 보완·개선

민주 윤준병 의원, 법안 대표 발의... “1963년 현행법 제정 이후 단일직급 보수 지급... 개선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3일,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육성 등을 담당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체계를 보완·개선하도록 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보수체계 현실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청원산림보호직원은 배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배치관 또는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아 그 보호지역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963년 현행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청원산림보호직원은 재직기간의 장단(長短)과 무관하게 임업서기(8급)는 단일직급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로 인해 근무의욕 저하 및 타성적인 업무수행 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청원산림보호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별로 구분하도록 해 보수체계를 현실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는 임업직렬 공무원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재직기간 7년 미만은 임업서기, 7년 이상 14년 미만은 임업서기, 14년 이상 24년 미만은 임업주사, 24년 이상은 임업주사로 구분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 전국의 청원산림보호직원은 산불 예방과 보호, 산림훼손 방지 등에 대해 중요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 1963년 현행법 제정 이후 단일직급의 보수만을 지급받도록 규정돼 그 역할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수체계를 현실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전문인력인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음=김대환기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 새만금 잼버리 현장 방문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는 3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군산시 홍보관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군산시 홍보관은 오는 11일까지 운영하며, 군산시간여행마을 놀이터라는 주제로 체험존, 놀이존으로 구성했다. 행정복지 위원들은 폭염속에서도 우리지역 관광지와 우수정책 홍보를 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홍보관 운영과 진행 상황에 대해서 청취하며, 프로그램 운영 등 효율적인 홍보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잼버리 기간 동안 시 홍보관 근무자와 음면동 참여자들에 대한 폭염 안전대책을 촘촘하게 세울 것을 주문했다. 박광일 위원장은 “무더위 속에서도 세계 청소년들의 힘찬 에너지와 환한 미소가 가슴에 와 닿는다”며 미래세대 주인공인 세계 청소년들의 화합 대추체인 잼버리대회 성공을 기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참여자들에 안전에 유의하고 성황리에 행사가 끝나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군산=김관근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